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1년 5월호

Contents

〈통계 요약〉	1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2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5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9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10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13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15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8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23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25



〈통계 요약〉

한일 무역의 2021년 4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1,222	41.2	50,788	33.9	434
일본 부분	2,461	24.0	4,843	21.4	-2,382
일본 비중	4.8		9.5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4월 상황

	2020년 4월	2021년 4월	증감률
수출(백만¥, %)	5,204,737	7,180,549	38.0
수입(백만¥, %)	6,141,681	6,927,477	12.8
수지(백만¥, %)	-936,944	253,072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5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1월		2021년 2월		2021년 3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27,873	11,145	13,031	1,293	21,974	6,918
한국 부분(억¥)	75	51	118	17	623	268
한국 비중(%)	0.3	0.5	0.9	1.3	2.8	3.9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3월 8일, 4월 8일, 5월 13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4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4월	2021년4월	증감률		2020년4월	2021년4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29,415	70,112	138.4	전체	2,917	10,900	273.7
방한 일본인	360	872	142.2	방일 한국인	299	1,100	267.9
일본인 비중	1.24	1.22		한국인 비중	10.3	10.1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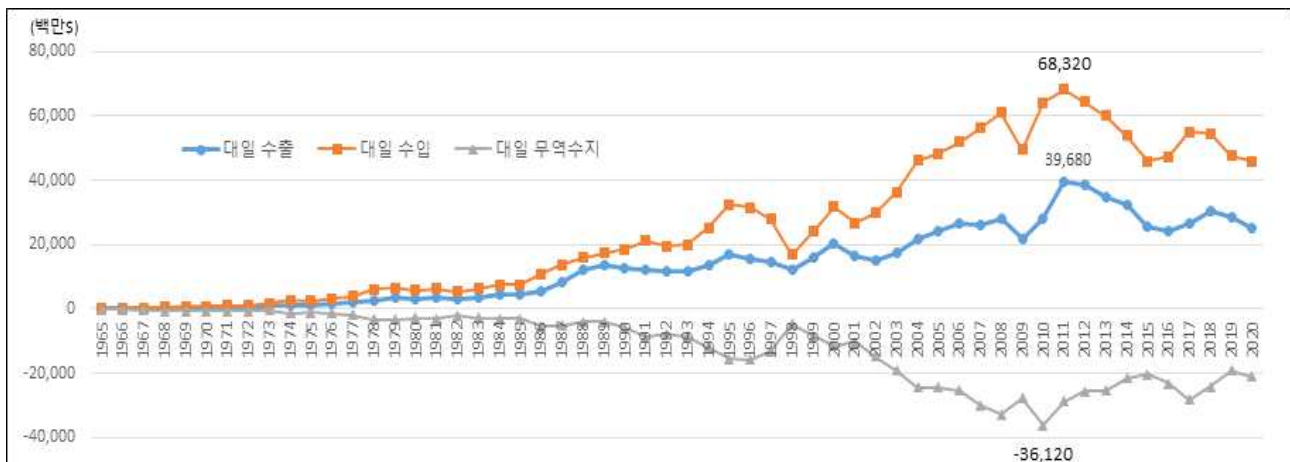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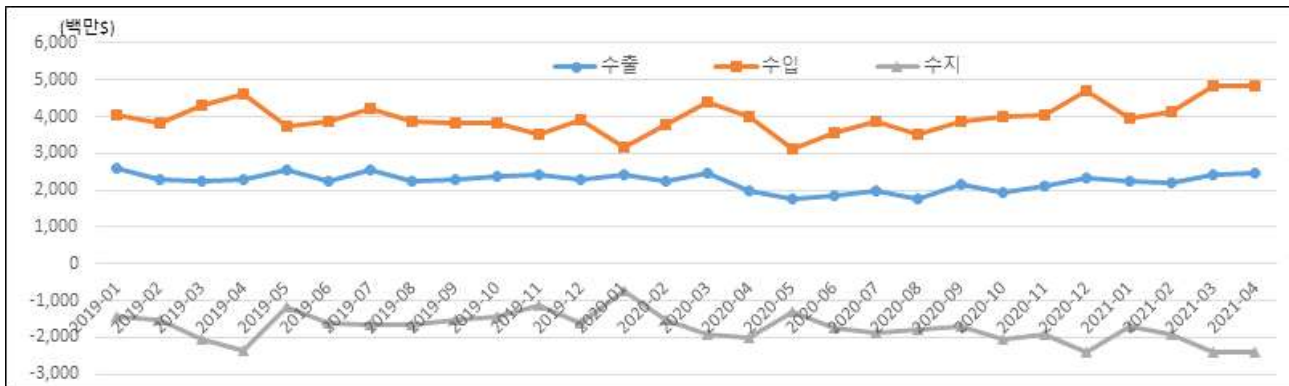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0년에는 대일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수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4월에는 수출 수입 모두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3월 및 4월에는 각각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2월, 3월, 4월에는 각각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20년 5월 감소 후 6월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1월에는 전월대비 감소, 2월 및 3월에는 증가, 4월에는 감소하였음

□ 한일 무역의 2021년 4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1년 4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대비 대일(對日) 수출은 24.0%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21.4%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1년 4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1,222	41.2	50,788	33.9	434
일본 부분	2,461	24.0	4,843	21.4	-2,382
일본 비중	4.8		9.5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1년 4월에 전년동월대비 한국전체 수출이 41.2% 증가하였고, 대일 수출은 24.0% 증가하여 24.6억 달러가 됨
- 2021년 4월에 전년동월대비 한국전체 수입이 33.9%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21.4% 증가하여 48.4억 달러가 됨

- 전체 무역수지는 4.3억 달러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23.8억 달러 적자였음
-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8%였고, 수입 경우는 9.5%였음

- <표2> 및 <표3>은 2021년 4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8개 품목이 증가하였고 수입도 8개 품목이 증가하였음

<표2> 한국의 2021년 4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 위	품목명	2020년 4월(백만\$, %)			2021년 4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1,985	-12.8	-2,004	2,461	24.0	-2,382
1	광물성연료	141	-64.8	115	394	179.9	307
2	철강제품	245	-24.7	-245	286	16.7	-213
3	정밀화학제품	210	35.6	-181	219	4.2	-180
4	금속광물	130	77.7	78	191	47.0	117
5	전자부품	139	11.1	-331	155	11.4	-486
6	석유화학제품	97	-24.1	-99	148	53.5	-210
7	농산물	101	2.6	86	122	20.9	102
8	산업용전자제품	123	31.2	-188	106	-13.9	-161
9	플라스틱제품	71	8.3	-130	72	0.9	-149
10	기계요소공구및금형	77	-3.7	-42	71	-7.8	-62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1년 4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 위	품목명	2020년 4월(백만\$, %)			2021년 4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3,989	-13.9	-2,004	4,843	21.4	-2,382
1	정밀기계	465	-3.2	-416	690	48.4	-638
2	전자부품	470	-10.9	-331	641	36.4	-486
3	철강제품	489	-19.3	-245	499	2.0	-213
4	정밀화학제품	390	-13.7	-181	399	2.3	-180
5	석유화학제품	195	-48.5	-99	358	83.7	-210
6	산업용전자제품	311	31.5	-188	267	-14.1	-161
7	기초산업기계	236	12.5	-173	231	-2.1	-169
8	수송기계	187	-34.5	-128	226	20.9	-165
9	플라스틱제품	201	1.5	-130	221	9.9	-149
10	산업기계	157	-20.8	-92	172	9.2	-113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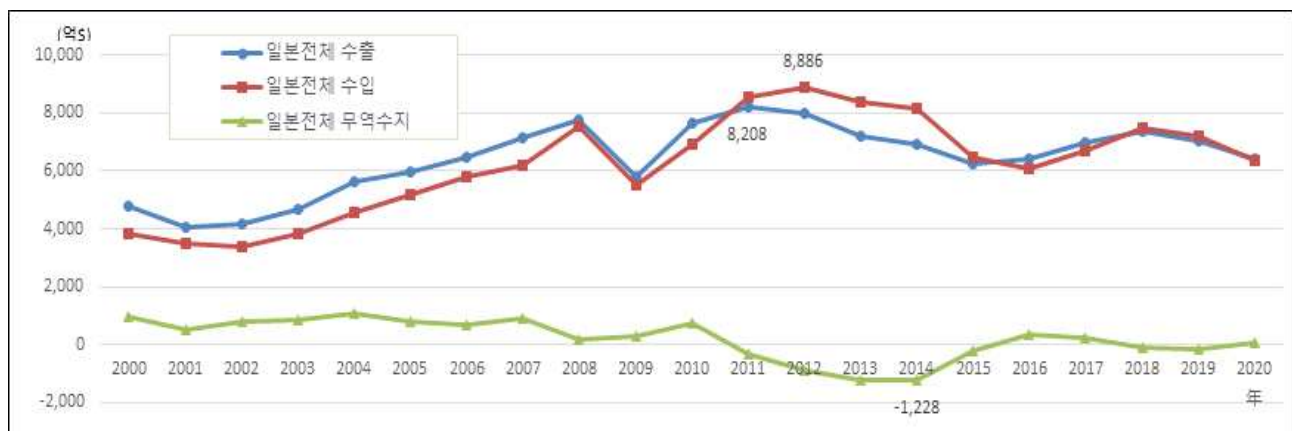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광물성연료(179.9%), 석유화학제품(53.5%), 금속광물(47.0%) 등 8개 품목이 증가하였고, 산업용전자제품(-13.9%), 기계요소공구및금형(-7.8%) 2개 품목이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석유화학제품(83.7%), 정밀기계(48.4%), 전자부품(36.4%) 등 8개 품목이 증가하였고, 산업용전자제품(-14.1%), 기초산업기계(-2.1%) 2개 품목이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를 보인 후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함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수지는 151억 달러 적자였음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400억 달러, 수입은 6,341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59억 달러 흑자였음

□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4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4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도 흑자로 나타남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4월 상황

	2020년 4월	2021년 4월	증감률
수출(백만¥, %)	5,204,737	7,180,549	38.0
수입(백만¥, %)	6,141,681	6,927,477	12.8
수지(백만¥, %)	-936,944	253,072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5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등제조장치, 자동차부분품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8.0% 증가하여 7조 1,805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석유제품, 비철금속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2.8% 증가하여 6조 9,275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에는 9,369억 엔의 적자였으나, 2021년 4월에는 2,531억 엔의 흑자가 달성되었음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4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7.9%, 수입의 50.3%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6,722억 엔 흑자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2.0%, 수입의 25.3%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1,670억 엔이었음
 - 홍콩은 수출의 4.6%, 수입의 0.2%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홍콩 무역흑자는 3,145억 엔이었음
 - 대만은 수출의 6.9%, 수입의 4.8%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1,624억 엔이었음
 - 한국은 수출의 7.2%, 수입의 4.2%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2,231억 엔이었음

- 미국은 수출의 17.8%, 수입의 10.7%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5,377억 엔이었음
- 서유럽 전체에 대해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였음
- 독일은 수출의 2.7%, 수입의 2.9%를 차지하였음
- 영국은 수출의 1.3%, 수입의 1.0%를 차지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4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7,180,549	100.0	38.0	6,927,477	100.0	12.8	253,072	-
아시아	4,155,732	57.9	32.7	3,483,497	50.3	10.2	672,235	-
중국	1,582,791	22.0	33.8	1,749,749	25.3	0.7	-166,958	-69.9
홍콩	326,907	4.6	20.2	12,444	0.2	156.3	314,463	17.8
대만	493,524	6.9	24.3	331,153	4.8	25.6	162,371	21.7
대한민국	517,428	7.2	25.6	294,326	4.2	19.5	223,102	34.8
싱가포르	187,363	2.6	15.0	65,986	1.0	-18.8	121,377	48.6
태국	313,743	4.4	35.1	239,118	3.5	8.6	74,625	521.2
말레이시아	152,813	2.1	62.2	180,389	2.6	77.6	-27,576	274.5
인도네시아	103,305	1.4	6.4	165,936	2.4	20.9	-62,631	55.8
필리핀	99,618	1.4	80.4	95,689	1.4	67.6	3,929	-
베트남	192,131	2.7	30.5	226,701	3.3	11.3	-34,570	-38.7
인도	121,883	1.7	183.3	60,164	0.9	36.4	61,719	-
대양주	198,625	2.8	106.4	425,961	6.1	2.3	-227,336	-29.0
호주	159,857	2.2	102.2	372,922	5.4	0.5	-213,065	-27.1
뉴질랜드	26,314	0.4	164.1	32,626	0.5	19.8	-6,312	-63.5
북미	1,365,364	19.0	48.4	864,475	12.5	6.3	500,889	367.4
미국	1,276,161	17.8	45.1	738,506	10.7	5.8	537,655	195.9
캐나다	89,204	1.2	118.9	125,209	1.8	9.3	-36,005	-51.2
중남미	260,758	3.6	31.3	259,068	3.7	-6.1	1,690	-
서유럽	772,182	10.8	40.7	919,956	13.3	19.4	-147,774	-33.4
독일	194,313	2.7	32.8	203,227	2.9	0.5	-8,914	-84.1
영국	90,673	1.3	37.8	66,993	1.0	21.4	23,680	123.1
프랑스	66,146	0.9	63.7	89,423	1.3	19.6	-23,277	-32.3
네덜란드	120,508	1.7	18.5	33,279	0.5	9.4	87,229	22.4
이탈리아	51,414	0.7	121.9	97,807	1.4	15.7	-46,393	-24.4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70,774	2.4	59.7	183,907	2.7	15.5	-13,133	-74.9
중동	177,270	2.5	16.2	671,326	9.7	40.2	-494,056	51.5
아프리카	79,844	1.1	60.8	119,285	1.7	78.6	-39,441	130.2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5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4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1개 품목 제외하고 모든 품목이 증가, 수입은 모든 품목이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는 원료품(75.3%), 수송용기기(69.4%), 일반기계(40.2%) 등 8개 품목이 증가한 반면, 광물성연료(-4.7%) 1개 품목이 감소하였음
 -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수송용기기(11.5%), 일반기계(8.0%), 전기기기(5.0%)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원료품(41.1%), 광물성연료(22.3%), 전기기기(18.3%), 수송용기기(10.0%)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광물성연료(3.6%), 전기기기(2.9%), 원료품(2.8%) 등의 순으로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6>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4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7,180,549	100.0	38.0	38.0	6,927,477	100.0	12.8	12.8
1 식료품	85,404	1.2	37.3	0.4	666,966	9.6	5.0	0.5
2 원료품	142,131	2.0	75.3	1.2	584,321	8.4	41.1	2.8
3 광물성연료	62,251	0.9	-4.7	-0.1	1,204,867	17.4	22.3	3.6
4 화학제품	955,346	13.3	28.5	4.1	789,165	11.4	4.7	0.6
5 원료별제품	796,664	11.1	27.4	3.3	701,771	10.1	4.2	0.5
6 일반기계	1,450,083	20.2	40.2	8.0	636,100	9.2	3.1	0.3
7 전기기기	1,267,342	17.6	25.6	5.0	1,137,585	16.4	18.3	2.9
8 수송용기기	1,464,628	20.4	69.4	11.5	286,354	4.1	10.0	0.4
9 기타	956,699	13.3	32.9	4.6	920,348	13.3	9.5	1.3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5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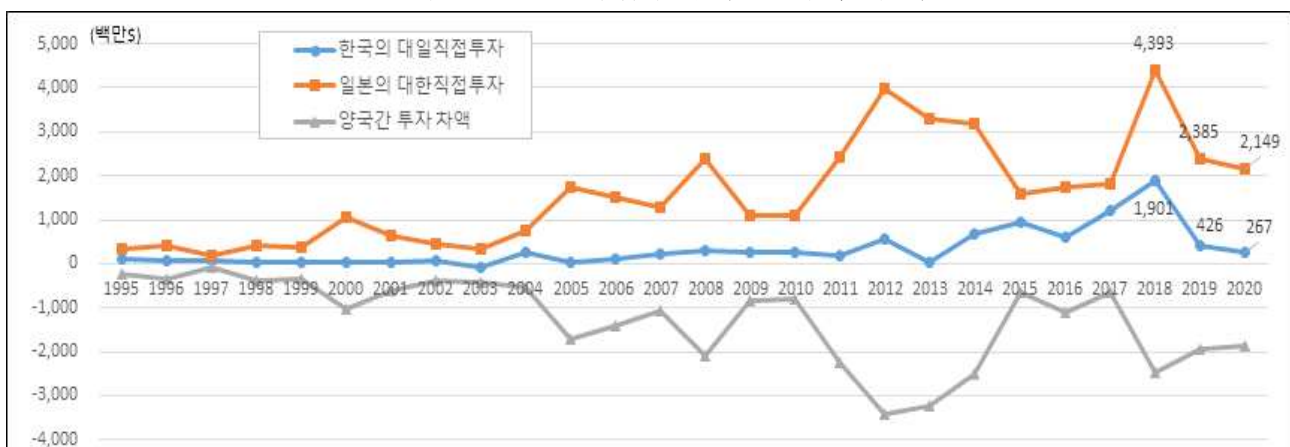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 및 2020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한일간 갈등 및 COVID-19가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20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2.67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659.77억 달러의 0.41%를 차지하였음
- 2020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1.49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1,711.23억 달러의 1.26%를 차지하였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1월		2021년 2월		2021년 3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27,873	11,145	13,031	1,293	21,974	6,918
한국 부분(억¥)	75	51	118	17	623	268
한국 비중(%)	0.3	0.5	0.9	1.3	2.8	3.9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3월 8일, 4월 8일, 5월 13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2월 13,031억 엔(실행 37,607; 회수 24,575)에서 3월 21,974억 엔(실행 57,498; 회수 35,524)으로 증가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1년 2월 118억 엔(실행 159; 회수 41)에서 3월 623억 엔(실행 663; 회수 41)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에서 2.8%로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2월 1,293억 엔(실행 26,828; 회수 25,535)에서 3월 6,918억 엔(실행 37,660; 회수 30,742)으로 증가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1년 2월 17억 엔(실행 29; 회수 11)에서 3월 268억 엔(실행 295; 회수 27)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3.9%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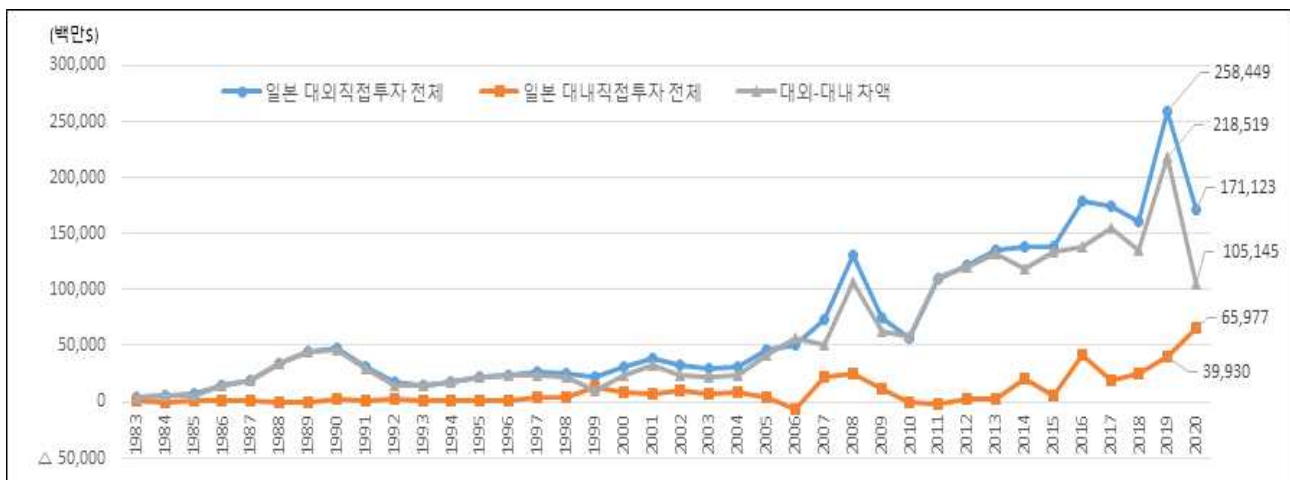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584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99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85억 달러에 달했음
- 한편 2020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711억 달러로 되었지만,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상최대인 660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1,051억 달러로 되었음
- 2020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59억 달러 흑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1년 3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 21,974억 엔, 대내직접투자 6,918억 엔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많았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21,974억 엔(실행 57,498; 회수 35,524)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는 북미(59.7%) 투자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에 유럽(19.4%), 아시아(10.1%), 중남미(7.2%) 등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13,054억 엔), 영국(1,448억 엔), 케이만제도(957억 엔), 중국(933억 엔) 등에 대한 투자가 많았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6,918억 엔(실행 37,660; 회수 30,742)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는 아시아(60.2%)로부터의 투자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에 유럽(16.6%), 중남미(14.2%), 북미(6.6%)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이루어졌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스위스(1,840억 엔), 홍콩(1,283억 엔), 싱가포르(1,194억 엔), 중국(1,072억 엔)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많았고, 룩셈부르크(-1,686억 엔) 경우에는 회수가 실행보다 많아 순투자가 마이너스였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1년 3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투자금액(Net)	구성비	투자금액(Net)	구성비
합계	21,974	100.0	6,918	100.0
아시아	2,220	10.1	4,166	60.2
중국	933	4.2	1,072	15.5
홍콩	124	0.6	1,283	18.5
대만	177	0.8	55	0.8
한국	623	2.8	268	3.9
싱가포르	-1,017	-4.6	1,194	17.3
태국	413	1.9	254	3.7
인도네시아	143	0.7	11	0.2
말레이시아	244	1.1	1	0.0
필리핀	108	0.5	22	0.3
베트남	403	1.8	—	—
인도	167	0.8	3	0.0
북미	13,128	59.7	454	6.6
미국	13,054	59.4	461	6.7
캐나다	74	0.3	-7	-0.1
중남미	1,586	7.2	985	14.2
멕시코	309	1.4	—	—
브라질	60	0.3	—	—
케이만제도	957	4.4	973	14.1
대양주	111	0.5	64	0.9
호주	83	0.4	77	1.1
뉴질랜드	-3	0.0	-5	-0.1
유럽	4,258	19.4	1,149	16.6
독일	636	2.9	112	1.6
영국	1,448	6.6	-776	-11.2
프랑스	344	1.6	39	0.6
네덜란드	901	4.1	-318	-4.6
이탈리아	74	0.3	9	0.1
벨기에	-1,349	-6.1	123	1.8
룩셈부르크	920	4.2	-1,686	-24.4
스위스	863	3.9	1,840	26.6
중동	1	0.0	—	—
아프리카	669	3.0	100	1.4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5월 13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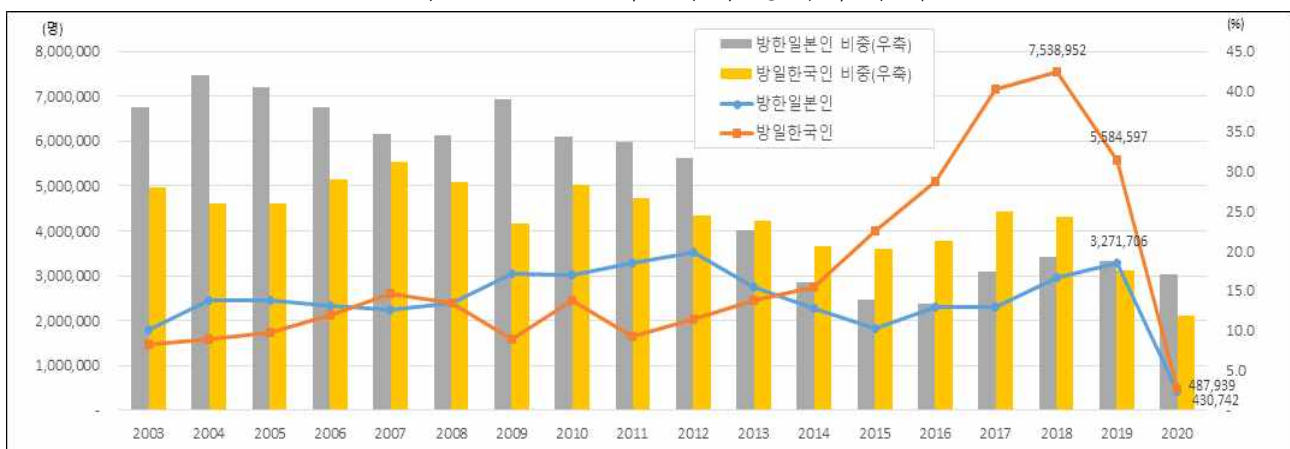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급감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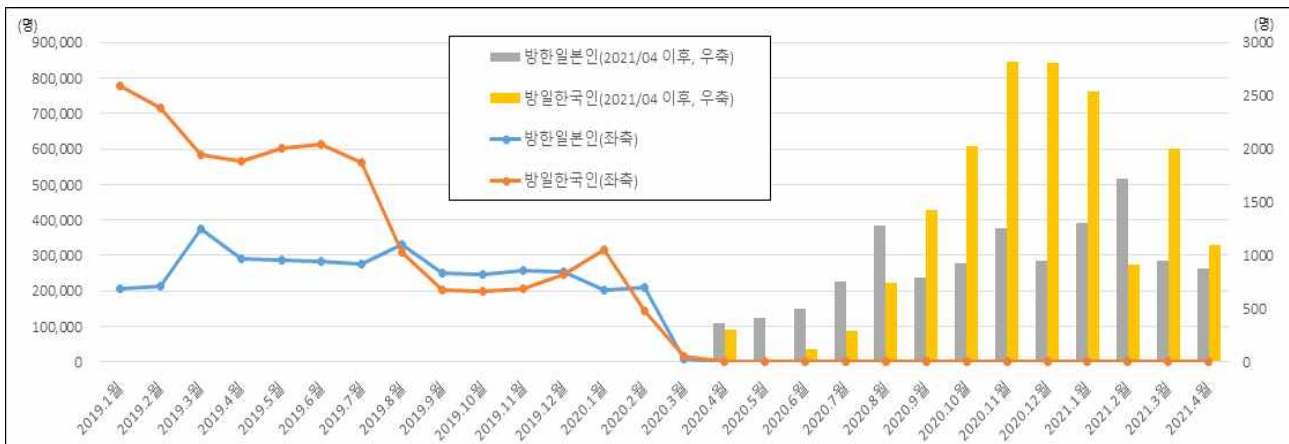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약 327만 명에 달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3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약 1,750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252만 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약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약 558만 명이 되었고,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9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약 3,188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412만 명)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월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203,969명, 2월 211,199명, 3월 8,347명, 4월 360명, 5월 413명, 6월 498명, 7월 755명, 8월 1,275명, 9월 794명, 10월 927명, 11월 1,254명, 12월 951명, 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3월 949명, 4월 872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316,812명, 2월 143,896명, 3월 16,669명, 4월 299명, 5월 18명, 6월 122명, 7월 294명, 8월 749명, 9월 1,426명, 10월 2,021명, 11월 2,825명, 12월 2,808명, 2021년 1월 2,535명, 2월 910명, 3월 2,000명, 4월 1,100명)

□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4월 상황

- <표5>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4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류인원이 COVID-19로 전년동월대비로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하였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4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4월	2021년4월	증감률		2020년4월	2021년4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29,415	70,112	138.4	전체	2,917	10,900	273.7
방한 일본인	360	872	142.2	방일 한국인	299	1,100	267.9
일본인 비중	1.24	1.22		한국인 비중	10.25	10.09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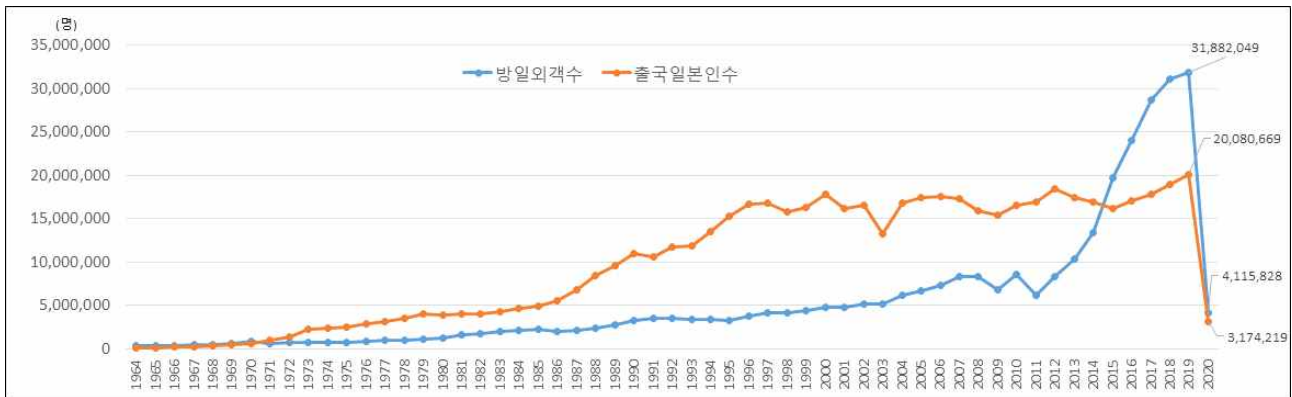
- 2021년 4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70,11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8.4% 증가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87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2.2% 증가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0년 4월 1.24%에서 2021년 4월 1.22%로 미미하게 감소하였음
- 2021년 4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10,9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3.7% 증가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1,1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7.9% 증가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0년 4월 10.3%에서 2021년 4월 10.1%로 약간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20년에 약 3,188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일본출국자수 약 2,008만 명보다 약 1,180만 명 더 많음
-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인해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여 각각 약 412만 명과 약 317만 명으로 됨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인적교류의 2021년 4월 상황

- <표10>은 2021년 4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수가 COVID-19로 전년동월대비로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전체 측면에서도 개별 국가 측면에서도 증가하였음
 - 2021년 4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10,9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3.7% 증가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1,100명으로 전체의 10.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267.9%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3,300명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924.5%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400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8.7%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홍콩인 수는 60명으로 전체의 0.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328.6%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인도인 수는 600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2207.7%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600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76.5% 증가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1년 4월 상황

국가·지역	2020년 4월		2021년 4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방일외객수(명)	비중(%)	방일외객수(명)	비중(%)	
전체	2,917	100.0	10,900	100.0	273.7
한국	299	10.3	1,100	10.1	267.9
중국	163	5.6	3,300	30.3	1924.5
대만	337	11.6	400	3.7	18.7
홍콩	14	0.5	60	0.6	328.6
태국	25	0.9	200	1.8	700.0
싱가포르	1	0.0	40	0.4	3900.0
말레이시아	20	0.7	100	0.9	400.0
인도네시아	96	3.3	200	1.8	108.3
필리핀	47	1.6	200	1.8	325.5
베트남	206	7.1	300	2.8	45.6
인도	26	0.9	600	5.5	2207.7
호주	50	1.7	100	0.9	100.0
미국	340	11.7	600	5.5	76.5
캐나다	47	1.6	100	0.9	112.8
멕시코	64	2.2	40	0.4	-37.5
영국	29	1.0	200	1.8	589.7
프랑스	12	0.4	100	0.9	733.3
독일	9	0.3	100	0.9	1011.1
이탈리아	5	0.2	90	0.8	1700.0
러시아	17	0.6	100	0.9	488.2
스페인	4	0.1	80	0.7	1900.0
중동지역	17	0.6	80	0.7	370.6
기타	1,089	37.3	2,810	25.8	158.0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Ⅳ.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1년 5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5월 26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9년	2020년	2020년 7-9월	2020년 10-12월	2021년 1-3월	2021년 1월	2021년 2월	2021년 3월	2021년 4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실질치	0.0	-4.7	-5.6	-1.1	-1.9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0.5	-2.0	-2.9	-1.9	-0.6	-1.2	-0.4	-0.1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5.8	-9.5	-18.7	-0.4	5.2	-0.4	6.3	8.2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0.5 -4.0	81.5 -9.9	81.3 -10.1	80.5 -7.0	83.0 -1.6	80.1 -3.1	80.8 -3.7	88.0 1.5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10.1	5.5	7.0	8.5	12.0	29.4	-6.0	14.2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4.3 -1.1	-11.8 -6.4	-14.9 -11.1	-1.8 -3.2	4.6 P 6.1	5.3 -4.1	-4.3 22.0	12.6 3.9	P 28.4 P 2.4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3.0	-10.4	-13.0	-3.5	-1.0	-5.3	-2.0	3.4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3.5	-27.3	-28.4	-0.7					
<도산> 기업도산건수 증감률	8,383 1.7	7,773 -7.2	2,021 -7.3	1,751 -20.8	1,554 -28.1	474 -38.6	466 -31.4	634 -14.3	477 -35.8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4	2.8	3.0	3.0	2.8	2.9	2.9	2.6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0.2 0.5	-1.2 0.0	-0.8 0.2	-2.1 -0.8	-0.3 -0.4	-1.6 -0.6	-0.6 -0.4	1.2 -0.2	P 3.6 -0.4
<금융> 닛케이 평균주가 환율(엔/\$)	21,697 108.99	22,705 106.73	22,906 106.20	25,194 104.49	29,001 106.09	28,189 103.70	29,458 105.36	29,315 108.65	29,426 109.13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1년 3월, 4월, 5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최근 서비스 지출을 중심으로 약세 상태임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3월에 전월대비 1.8% 증가함

- ‘가계조사’ (3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7.2% 증가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3월)에서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대비 1.2% 증가하였음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또 소비자 심리는 최근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재화 지출에서는 전반적으로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비스 지출에서는 감염증과 그에 따른 자숙의 영향이 더욱 보임
 - 신차판매대수 및 가전판매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고,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외식은 긴급사태선언의 해제 등으로 감소가 멈추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지만, 재발표 등의 영향으로 최근 약세로 되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개인소비는 최근 서비스지출을 중심으로 약세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염확대 방지책을 강구해 가는 가운데 회복 쪽으로의 방향전환이 기대되지만, 감염 확대에 따른 하향 리스크의 증가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설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10-12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2020년 10-12월기는 전기대비 0.3%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3% 감소, 비제조업이 0.7% 증가함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회복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투자는 약세 상태임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3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2020년도 설비투자계획은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2021년도 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과잉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개선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되고 있으며,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 등을 배경으로 기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이 기대됨
- 주택건설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자가주택의 착공은 회복되고 있음
 - 임대주택의 착공은 감소가 멈추고 있음
 - 분양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총 호수는 3월 전월대비 9.0% 증가하여 연율 88.0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당분간 보합 상태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높은 수준으로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하고 있음
 - 3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2.3% 증가, 4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8.4% 감소, 3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16.9% 증가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에 따라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완만한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며,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흑자로 되고 있음
 - 수출은 완만한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쪽 수출은 증가하고 있고, 아메리카, EU, 기타 지역 쪽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4월의 방일외객수는 2019년 4월 대비 99.6% 감소하였음
 -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아메리카, EU로부터의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3월 무역수지는 수출금액 증가로 흑자로 되었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됨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
 - 광공업생산지수는 3월에 전월대비 1.7% 증가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3월에 전월대비 0.4% 증가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4월은 전월대비 8.4% 증가, 5월은 전월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최근 약세 상태이며, 생산용 기계는 증가하고 있고, 전자부품·디바이스는 증가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도체 부족에 따른 영향 및 해외경제의 하향 리스크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비제조업에서는 약세가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회복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업중합이 남아 있는 가운데 회복 움직임에 담보상태가 보이며, 도산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 상장기업의 2021년 1-3월기 결산을 보면, 경상이익은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전년대비 이익증가로 나타남
 - 일본은행 短觀(3월 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 매출액은 상반기에 전년대비 3.9% 증가, 하반기에 전년대비 1.0%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경상이익은 상반기에 전년대비 10.9% 증가, 하반기에 전년대비 6.7%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엄중함이 남아 있는 가운데 회복 움직임에 답보상태가 보임
- 일본은행 短観(3월 조사)에 따르면 ‘최근’ 업황은 ‘전체규모-전체산업’에서 상승하였고, 6월 시점 업황을 나타내는 ‘향후전망’은 ‘최근’ 대비 약간 신중한 견해로 나타남
- 도산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3월 634건, 4월 477건으로 되었음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자 수 등의 움직임에는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3월에 전월보다 0.3% 포인트 낮아져 2.6%로 됨
 - 노동력 인구, 취업자수, 완전실업자수는 감소하였음
 - 고용자 수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신규 구인 수는 최근 보합권내에 있음
 - 유효구인배율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제조업 잔업시간은 회복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총액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일본은행 短観(3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제조업도 부족초과 쪽으로 바뀌었고, 계속적으로 전체 산업에서는 부족초과로 되어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조정 상황에 따라 약세가 커질 우려도 있기에 감염증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 기업물가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보합 상태임
 - 4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0.7% 상승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는 상승하고 있음
 -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4월에는 전월대비 4.7% 포인트 상승하여 76.0%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보합권내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상승-하락-상승 추세를 보였고, 환율은 엔저-엔고로 추이함
 - 주가는 29,000엔 대부터 29,500엔 대까지 상승한 이후 27,400엔 대까지 하락하였다가 28,300엔 대로 상승함
 - 달러대비 엔화의 환율은 107엔 대에서 109엔 대로 엔저 방향으로 추이한 후 108엔 대까지 엔고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 금리는 -0.01% 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4.3%(4월) 증가하였음
- 머니트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24.3%(4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대비 9.2%(4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1년 5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5월 26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함과 더불어, 결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COVID-19 감염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고용 확보와 사업 계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나가고자 함
- COVID-19 감염증에 대해서는 신형인플루엔자등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10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을 대상으로 긴급사태조치를 또 9개 현(県)을 대상으로 만연방지등중점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계속해서 감염 재확대 억제를 최우선으로 해서 대책을 철저히 함과 더불어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중점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함
 - 나아가 성장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대담하게 불러일으키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촉구하여 민간수요 주도의 성장궤도 실현에 연결시킴
 - 정부는 2020년도 제3차보정예산 및 2021년도 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히 집행함과 더불어, 계속 감염상황 및 경제적인 영향을 주시하면서 예비비도 활용하여 기동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감
- 감염증 대책, 백신접종에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포스트코로나도 생각하면서 그린, 디지털, 지방의 소득향상 등을 통해 강한 경제를 만들어가고자 함
 - 나아가 저출산 대책 등 오랜 기간의 과제에도 답을 내기 위해 6월을 목표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 등을 마무리할 예정임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기업 등의 자금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져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행하여,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함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일본경제 정책 동향

○ COVID-19 관련 동향

- 5월 8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대신은 요미우리TV프로그램에서 출근자 70% 감소를 위해 재택근무 도입을 기업이 적극 적용하도록 할 생각을 강조하였음
- 고노 다로 백신담당상은 5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5월 하순 경 기업 내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음
- 5월 16일 긴급사태선언이 홋카이도, 히로시마, 오카야마에 발령되어 선언대상지역이 9개 도도부현으로 확대되었음
-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에는 휴업 요청, 대형 상업시설은 단축 영업 등을 요구함
- 후생노동성은 COVID-19 백신 접종에 있어서 직장에서의 접종을 추가함
- 직장에서의 접종은 기업이 지자체로부터 공적 백신 접종사업을 위탁받는 형태를 상정하며, 접종 개시 시기는 미정임
- 기존에 내려진 긴급사태선언 지역에 5월 23일부터 오키나와현이 추가되었음
- 그 결과 아래와 같이 5월말 현재 긴급사태선언이 10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만연방지등중점조치가 8개 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내용	실시기간	실시구역
긴급사태 선언	-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함	2021.4.25. - 6.20	도쿄도, 교토부, 오사카현, 효고현
	- 시간단축과 휴업을 요청·명령	2021.5.12. - 6.20	아이치현, 후쿠오카현
	- 명령위반에 대해 30만엔 이하 과료(過料) 징수	2021.5.16. - 6.20	홋카이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2021.5.23. - 6.20	오키나와현
만연방지등 중점조치	- 지사가 시구정촌(市区町村)을 대상으로 지정	2021.4.20. - 6.20	사이타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
	- 시간단축 요청·명령만	2021.5. 9. - 6.20	기후현, 미에현
	- 명령위반에 대해 20만엔 이하 과료(過料) 징수	2021.5.16. - 6.13	군마현, 이사가와현, 구마모토현

(출처: 내각관방 사이트 <https://corona.go.jp/emergency/> 참고)

○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

- 2021년 9월에 디지털청을 창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디지털 개혁 관련 6법이 5월 12일 참의원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이 중 디지털청은 국가의 정보시스템을 총괄하게 되며, 수상을 중심으로 함
- COVID-19의 감염 확대로 고용환경이 악화되고, 외출 자속으로 침체된 업계도 많은 상황임
- 일본정부는 IT나 의료를 비롯한 성장 분야에 인재를 전환하기 위하여 구직자 지원 훈련, ‘공공 직업 훈련’, ‘교육훈련 급부제도’ 등의 기존 제도의 지원 규모를 늘려 30만 명 규모의 취업을 지원함

(출처: NHK, 2021.05.12., 2021.05.21.; 산케이신문, 2021.05.08., 2021.05.12. 2021.05.14.; 닛케이신문, 2021.05.27., 2021.05.31.; 요미우리신문, 2021.05.16.)

□ 일본 정부의 산업관련 정책

- 자민당은 일본의 반도체 전략을 검토하는 의원연맹을 발족시킴
 - 일본의 반도체산업 강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을 논의하는 자민당의 새로운 의원연맹이 설립되었으며 아베 전 총리가 최고고문에 취임하였음
 - 의원연맹 설립 취지서에서 ‘공급망과 기술의 개발·보호 등에서 미일을 기축으로 제휴를 강화’라고 명기하였음
 - 회합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관민의 투자 방식, 일본에 강점이 있는 제조 장치와 소재 분야 강화를 위한 논의, 정부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조선·해운업 기반 강화를 위한 법안 통과
 - 조선업과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5월 14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조선업과 해운업에서 중국, 한국 등과의 경쟁이 격렬해지고 있음
 - 조선 분야에서는 사업 재편,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의 인정을 받으면 보조금 및 정부금융기관의 장기융자를 받을 수 있는 등의 내용임
 - 해운업에서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 운항하는 사업자가 국가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음
 - 이를 통해 조선업 분야에서는 국제경쟁력 제고 및 생산 거점에서의 고용 유지로 연결시키고자 하며, 해운업 분야에서는 젊은 선원의 정착을 재촉하고자 함
- 희토류 국내 제련소 정비에 힘써 나갈 계획
 - 일본정부는 희토류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일본 국내 제련소 정비에 힘써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일본 국내에서 사용되는 희토류의 60% 이상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일본정부는 호주 광산과 제휴하는 등의 조달처 분산을 진행해 왔음
 - 일본 국내 제련공장의 규모 확대 및 기업 수 증가를 지원할 계획임
- 탈탄소화에 대한 대응
 -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지역간 송전망 용량을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안이 마련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해상 풍력 발전이 적합한 홋카이도와 관동을 직접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새롭게 정비하며, 태양광 발전이 보급되는 규슈와 추고쿠 지방 사이를 증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산업성에서 검토를 진행하게 됨
 - 일본정부는 2030년도에 재생가능 에너지를 36~38%로 할 방향을 설정함
 - 경제산업성은 2030년도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전원 구성 비율에서 원자력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등 탈탄소 전원을 60% 목표로 끌어올릴 방침임

- 일본정부는 2050년까지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 목표를 내걸었음
-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본 국내 항구를 연결하는 내항선에 대한 탈탄소 및 에너지절약 추진에 관한 로드맵을 책정할 예정임

(출처: NHK, 2021.05.10., 2021.05.12., 2021.05.14., 2021.05.21.; 산케이신문, 2021.05.12., 2021.05.13., 2021.05.14., 2021.05.19.; 닛케이신문, 2021.05.13., 2021.05.22., 2021.05.31.)

□ 한일 관계

○ 한일 외무장관 회담

- 5월 5일 한일 외교장관이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하였으나 평행선으로 끝났음
- 회담에서는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했음
- 5월 6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원고측은 항소하였음
- 일본기업 16사에 대한 재판이 5월 28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징용 문제로 한꺼번에 다수의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심리가 열리는 것은 처음

(출처: NHK, 2021.05.28.; 아사히신문, 2021.05.06.; 마이니치신문, 2021.05.07.; 산케이신문, 2021.05.06.)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일본 탈탄소 관련 산업 동향

○ 수소에너지 관련 동향

- 시즈오카현에 건설 중인 실증 도시인 ‘우븐시티(Woven City)’에서 사용하는 수소 에너지에 대하여 토요타자동차는 석유 제조 대기업인 ENEOS와 협력한다고 발표함
- ENEOS는 실증 도시 근처에 수소 스테이션을 건설하고 2023년에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는데, 물류에 활용할 예정인 연료전지 트럭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 이외에도 그린수소의 제조나 도시 내 수급 관리 시스템도 개발함
- 도쿄공업대학은 고가의 금속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소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음
- 가와사키중공업은 5월 24일 액화 수소 운반선 ‘수소 프론티어’를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에 호주에서 채굴한 저렴한 갈탄에서 제조한 수소를 액화 상태로 만들어 고베시로 운반하는 실증 실험을 개시함
- 실증 실험에는 이와타니산업, 전원개발, 대기업 상사 등이 참가하며, 국립연구개발법인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가 지원함
- 국경을 넘은 액화 수소의 도입은 세계 최초 시도이며, 수소를 저비용 대량운송할 수 있는 공급망의 구축을 시도함

○ 탈탄소 관련 동향

- 손해보험 기업인 동경해상홀딩스는 탈탄소 사회 실현을 향한 새로운 전략으로 전 세계 거점에서의 전력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100%로 할 방침임
- 또한, 동경해상홀딩스는 국내에서 보유하는 모든 자동차를 전동차(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모두를 포함)로 전환하여 2030년도 그룹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도 대비 60%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할 방침임
- 테슬라모터스재팬은 다카사고열핵공업 연구 시설인 다카사고열핵 이노베이션센터에 일본 시장에 약 3,000kWh 용량의 대형 축전지를 납입하였음
- 테슬라모터스재팬은 가정용 축전지에 이어 대형 축전지로 진출하여 전력 수요가 크며, 재생 에너지 도입의 가속화가 전망되는 일본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시킴

(출처: 요미우리신문, 2021.05.12.; 닛케이신문, 2021.05.17. 2021.05.27.; 산케이신문, 2021.05.24.; NHK, 2021.05.25.)

□ 일본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제철산업, 반도체산업 동향

○ 일본 조선산업의 경쟁력 향상

- 일본조선공업회(日本造船工業会) 사이토 타모쓰(齋藤 保) 회장은 5월 24일 기자회견에서 COVID-19 감염 확대에 인한 영향 및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업체나 한국업체들과 비교하여 일본업체의 수주는 부진하고 공사도 급감해 위기상황이라고 밝힘
- 조선·해운업 기반 강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경쟁력의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함
- 일본조선공업회에 따르면 일본 조선회사가 확보한 공사용량은 5년 전의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고 함

○ 일본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방향

- 닛산자동차와 중국 에너지 관련 기업이 출자하는 엔비전AESC재팬(Envision AESC Japan)이 전기자동차용 전지 생산을 위한 새로운 공장을 이바라키현에 건설할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엔비전AESC재팬은 현재 카나가와현 자마시의 공장에서 닛산자동차의 주력 전기자동차인 ‘리프’ 전용의 전지를 생산하고 있음
- 주차장의 운영 등을 다루는 ‘파크24’의 앙케이트 결과에 의하면 전기자동차 구입 검토에 대한 응답으로 ‘가격이 적당해지면’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음
- 구체적으로는 ‘200만 엔 이하’라는 응답이 약 60%로 나타남
-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전기자동차의 가격은 300만 엔대에서 400만 엔대임
- 탈탄소화가 중요해지면서 자동차업체들은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차 등 전동화에 대한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격 인하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 혼다는 2040년에 세계에서 판매하는 사륜차를 모두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차로 하는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탈엔진을 진행하고 있음
 -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으로 2030년 시장별 전동화율 목표는 일본 95%, 북미 70%, 유럽 100%로 하며, 세계에서 800만대의 전동차를 판매할 계획이지만, 이 중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차는 200만대에 지나지 않음
 - 토요타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현행 가솔린차의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수소엔진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음
 - 마쓰다는 2030년에 생산하는 차량 중 전기자동차 비율을 25% 정도로 높이고, 로터리 엔진을 발전기로 하는 전동차를 2022년 상반기부터 시장에 투입할 계획임
- 일본 제철산업의 흑자 회복
- 일본제철과 JFE홀딩스는 2021년 실적 전망에 대해 모두 흑자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2122년 3월까지의 1년간 실적 전망으로 그룹 전체 순이익이 일본제철 2,400억 엔, JFE홀딩스 1,300억 엔으로 예상되어 두 기업 모두 3년 만에 흑자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됨
 - COVID-19 감염 확대로 철강 수요가 일시적으로 침체되었으나 올해 세계적으로 회복이 전망되며 주된 거래처인 자동차산업의 생산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일본 반도체산업의 해외 투자 증가 및 국내 공장 신설
- 일본 화학기업의 한국과 대만 투자가 늘고 있음
 - 도쿄응화공업은 한국 인천시의 기존 공장에 수십억 엔을 투자하여 설비를 확충하고 감광재의 생산 능력을 배증하였음
 - 다이킨은 한국 반도체 제조 장치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현지에 공장을 세우며, 새로운 공장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엠티 공정에 사용할 가스를 생산하는데, 현지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임
 - 쇼와전공머티리얼스(구 히타치화성)도 2023년까지 200억 엔을 들여 한국과 대만에서 실리콘웨이퍼 연마재와 배선기관 재료 생산을 증강할 예정임
 - 공급망에 대한 불안도 수요지에서의 증산을 지지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이 수출관 리 대상인 화학품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여전히 경제산업성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만, 한국 현지 생산에 대해서는 수출과 같은 규제는 없음
 - 반도체 대기업인 키옥시아(구 도시바메모리)가 플래시메모리를 제조하는 기타가미 공장의 신설 공장건물을 빠르면 2023년 가동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함

(출처: 산케이신문, 2021.05.26.; NHK, 2021.05.07., 2021.05.24., 2021.05.29., 2021.05.31.; 닛케이신문, 2021.05.02.; 산케이신문, 2021.05.12.)